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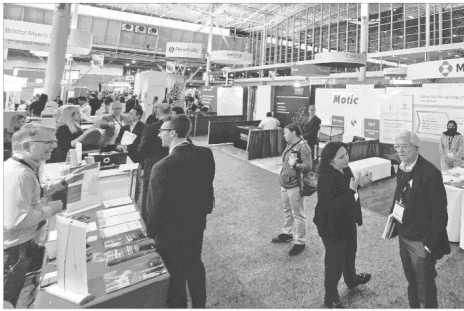
“암 치료 새 지평” ... 네오이문텍, 美서 호평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17
美 학회서 임상 중간결과 공개
대장암·폐암용 개발 생존기간
기존 6개월서 15개월로 늘려

“몸에 면역세포(T세포)가 적을수록 암 환자는 더 빨리 사망합니다. 그래서 T 세포를 늘려주면 환자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죠. 이번 임상 2상 중간 결과는 이것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세환 네오이문텍 대표(사진)는 12일(현지시간) 미국면역항암학회(SITC)가 열린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컨벤션센터(BCEC)에서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네오이문텍은 전날 SITC 세션에서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17’의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대장암·폐암용 환자 생존기간 2배 ↑ 네오이문텍은 세계 1위 면역항암제인 미국 MSD의 키트루다와 NT-17을 함께 투약하는 병용요법으로 미국 임상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한 중간 결과는 “드라마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치료제로는 평균 6개월인 대장암·폐암 환자 생존기간이 15개월로 두 배



미국면역항암학회(SITC)가 12일(현지시간) 개막했다.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이번 학회에는 유관양행 등 1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참가했다. 이우상 기자

늘었기 때문이다.

NT-17은 면역세포 중 T세포를 늘려준다. 양 대표는 “대장암과 폐암 양 모두 키트루다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는데, NT-17을 함께 투약하니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장암과 폐암뿐만 아니라 교묘세포종 환자들도 NT-17 투약 후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암은 면역항암제가 잘 듣지 않고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다. 양 대표는 “면역항암제가 통하

려면 먼저 암세포를 공격할 면역세포가 필요한데, NT-17이 면역세포를 늘려주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암 치료 기술 개척

NT-17은 2014년 네오이문텍 설립 당시 제넥신의 연구소장이던 양 대표가 제넥신의 여러 후보물질 중 엄선한 것이다. NT-17은 우리 몸에서 T세포가 늘어나도록 신호를 보내는 물질(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7(IL-7)’에서 유래했다. 당시 국내에선 IL-7에 주목하지 않았다. 암세포를 곧바로 공격하는 T세

포가 아니라 오랫동안 면역작용을 돕는 줄기세포를 늘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에 걸린 뒤 소총수를 늘려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치료요법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양 대표는 “연구 과정에서 줄기세포 유사 기세포를 늘린 덕분에 부작용이 적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다.

최근 들어 IL-7을 비롯한 사이토카인을 활용한 항암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OSE테라퓨틱스가 IL-7로 신약 개발에 나섰지만 네오이문텍과의 격차는 크다. 네오이문텍은 키트루다 외에 ‘인라이’ 같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치료제 등으로 NT-17의 병용 파트너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 임상 ‘올인 전략’ 통했다 제넥신에서 분사한 네오이문텍이 미국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배경은 미국 임상시험을 위해서였다. 양 대표는 “미국에서 신약 개발을 직접 하는 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2018년 시작한 임상 1상부터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쌓았다. 그는 “미국 현지 임상 관련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며 “NT-17의 효과를 임상으로 들은 현지 의사가 임상을 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한다”고 했다.

보스턴=이우상 기자



양세환 네오이문텍 대표(사진)는 12일(현지시간) 미국면역항암학회(SITC)가 열린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컨벤션센터(BCEC)에서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네오이문텍은 전날 SITC 세션에서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17’의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일반大와 예산 나눠먹기 안돼” 과학계 강력 반발, 기재부 ‘백기’

▶ 시면 ‘과기원 예산’에서 계속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새로운 예산 주머니에 4대 과기원 예산을 합치려고 했다. 초·중고에서 넘치는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 4대 과기원이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4대 과기원 등 과학계는 이런 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별회계로 가던 예산 집행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로 바뀌고, 220여 개 대학 등과 재원을 나누게 되면서 4대 과기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전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수 천장의 기술적 자료가 필요한 마당에 예산은 천만 기술 개발 필요성을 교육부와 교육위가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회계로 가도 예산 편성부처는 과기정통부, 예산 각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통합 구상의 첫 단추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AIST 재학생들 역시 지난 12일 긴급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원을 올리며 강력하게 반대해 나섰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통합 구상의 첫 단추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가 지금까지는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로 바뀌고, 220여 개 대학 등과 재원을 나누게 되면서 4대 과기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전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이해성 기자

효율 높은 초소형 연료전지 개발

▶ 으뜸종기

중기부 ‘아기유니콘’ 테라릭스



연료전지는 연료와 산화제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테라릭스는 수소를 연료로 한 초소형연료전지 파워모듈(파워팩) 전문 제조업체다. 드론을 비롯한 초소형 모빌리티에 특화된 파워모듈 기술력을 앞세워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아기유니콘으로도 선정됐다.

아기유니콘은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기업 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시장 개척 자금 3억원을 비롯해 특별 보증 및 정책자금, 연구개발(R&D) 관련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테라릭스가 선보인 공평식 연료전지

는 공기를 냉각 매체로 활용해 제품 구조가 단순한 게 특징이다. 공기와 열관리 장치를 통합해 시스템 전체 무게를 줄임으로써 한층 경량화된 전원장치 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평가다.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사진)는 “설계를 단순하게 해 전원장치를 가볍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며 “가볍지만 내구성과 전압 안정성, 출력이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는 12월 모빌리티용으로 끝지의 기업에 파워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귀띔했다. 김병근 기자

글로벌 게임장터 휩쓴 ‘니케’ ... 상장 추진

LG유플러스, 현대차에
텔레매틱스 회선 공급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든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량에 무선통신(텔레매틱스) 회선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차량 시스템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해 차량을 원격 관리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쓸 수 있는 차를 뜻한다. LG유플러스는 현대차등차그룹에 다년간 통신회선을 독점 공급한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통신 3사 회선을 나눠 쓰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대차 등과 총 수백억원 규모로 협업할 것”이라며 “차량 판매량에 따라 사업 규모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결 기자

美·H·대만, 애플·구글업 1위
소프트업, 1조 가치 인정 받아

서비스업 게임으로 유명한 소프트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업은 최근 내부적으로 상장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2013년 설립했다. 회사 창업자인 김형태 대표는 “창세기전” “블레이드&소울” 등의 원화가로 잘 알려진 스타 개발자다. 2016년 출시한 서비스업 장르의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로 성공을 거뒀다.

지난 7월 IMM인베스트먼트와 스마일케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받으면서 1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가 상장을 결심한 것은 지난 4일 출시한 ‘슬리의 여신: 니케(이하 니케 사진)’의 흥행 때문이다. 니케는 전통형 안드로이드가 수수께끼의 기계와 맞서 싸우는 내용의 서비스업 장르 삼인칭 슈팅(TPS) 게임이다. 텐센트 산하 래블 인피니티가 서비스를 맡고 있다. 출시 이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니키시, 오딘, 히트2 등

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 게임 1위, 매출로는 10위권 안에 들었다.

소프트업 관계자는 “출시 전 예상했던 가장 좋은 성과를 뛰어넘었다”며 “이같은 장르의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시장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출시를 앞둔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출시가 결정된 것도 상장을 통해 덤치를 키우기로 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과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지스타 2021 기자 간담회에서 “니케 공개 전후로 IPO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우상 기자

한경미디어그룹



한경과 함께한 이야기를 액자로 간직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은 매주 ‘사람들’ ‘CEO 탐구’ 코너를 통해 우리 이웃과 기업인들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면에 소개된 분들을께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세요.

한경 기사액자 만들기

본인, 가족, 직원, 회사 관련 기사 등 한경 지면에 소개되었던 내용들을 신문 형태 그대로 액자에 담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한경멤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
02.360.4422
members.hankyung.com

